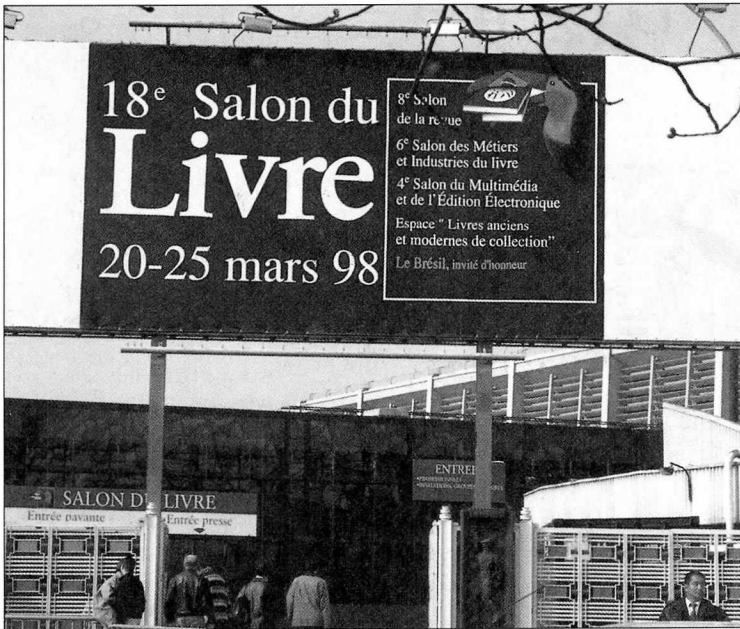


책의 열정으로 돌아오른 문화 축제

제18회 파리국제도서전을 돌아보고

최연구

《한겨레21》 파리통신원



파리 국제도서전 입구의 간판.

올해로 18회를 맞는 파리 국제도서전(살롱 뒤 리브르)이 지난 3월 말 파리 최대의 상설전시장인 포트 드 베르사이유의 파리 엑스포 제1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전인 '파리 오토 살롱'이나 국제적인 명성의 '국제제빵제과전' 등 유명한 국제전시회들이 사시사철 열리는 포트 드 베르사이유의 전시장은 명실공히 전시장의 백미라 불릴 만하다. 파리를 세계문화와 예술의 수도라 부르는 데는 일년내내 끊임없이 열리는 이 다양한 전시회들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파리는 적어도 연중 심심해 지지 않는 도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프랑스 전역이 도서축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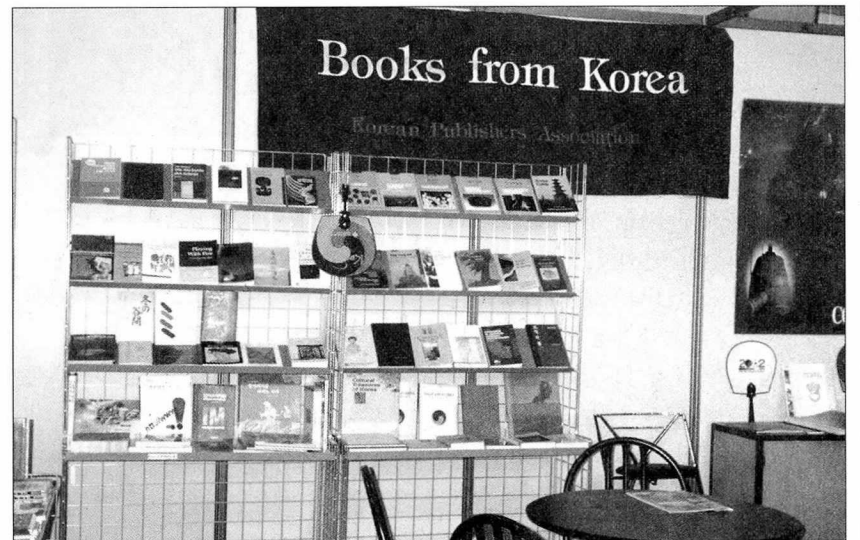
해마다 그 규모와 열기를 더해가는 파리 국제 도서전은 말 그대로 책과 관련되는 모든 적어도 책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한 자신들의 열정을 표출하는 만남의 장이다. 지난 3월 20일에서 25일까지 6일간 열렸던 이 도서전에는 유명 작가만도 1600여명, 프랑스 출판사 1500개, 26개국에서 온 450여 외국 출판사가 참여했으며, 약 2천개의 부스에다 전시면적만도 4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지난해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97년에 파리 도서전을 다녀간 사람이 20만명을 넘었다고 하니 방문객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가히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비견할 만하다.

한편 도서전과 함께 한편에서는 잡지 전시회, 멀티미디어 전시회, 도서산업 전시회도 동시에 열렸는데 입장권 하나로 4개의 살롱(전시회)을 모두 구경할 수 있다. 프랑스 문화부에서는 파리 도서전을 계기로 젊은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해 2만여명의 젊은이에게 초대장을 발송했다고 한다. 한편 TV나 라디오에서도 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집중적으로 열어 이 기간은 프랑스 전역이 도서 축제 분위기다.

파리 도서전은 매년 한 국가를 초대 국가로 정해서 그 나라의 도서출판 상황을 소개하고 그 나라 출판사와 출판인, 유명 저자들을 초대해 왔는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올해의 초대 국가는 브라질이었다. 소설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로(Paulo Coelho)나 저항작가 조르주 아마도(Jorge Amado) 등도 초청작가의 명단에 올라 있다. '브라질 초대전' 이니만큼 브라질 문호와 문학에 대한 토론회, 브라질 작가와의 대화 등 각종 행사들이 실재없이 개최되었다. 가령 도서전 개장일인 20일에는 브라질의 정체성, 프랑스와 브라질의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3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다음날에는 브라질 문학에 대한 집중 토론회가 벌어졌다. 브라질 작

해마다 규모와 열기를 더해가는 파리국제도서전은 말 그대로 책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는 만남의 장이다. 이번 도서전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만 120회, 라디오방송이 300회, 신문·잡지의 기사는 1400건이나 된다니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관심에 놀라울 뿐이다.



프낙서점 주관으로 열린 '문학카페' (위)와 한국부스(아래).

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작가와와 한시간'이나 특정주제를 가지고 유명작가들이 나와 자유토론회는 '작가포럼'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문학카페' '철학카페' 등 인기

특히 파리 도서전의 특이한 행사 중의 하나는 '문학 카페'이다. 올해로 3년째인 문학 카페는 프랑스 최대의 서점조직 프낙(Fnac)의 주관으로 열리는데 말 그대로 문학이 있는 카페다. 간이 카페를 차려놓고 전면에는 토론 테이블을 설치해 놓았는데, 문학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전면의

테이블에서 사회자의 사회로 진행되는 초대 손님과의 대화나 문학토론 등을 경청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문학카페이다. 여유 있는 분위기에서 격조 있는 문학토론을 TV 생중계 보듯 관람할 수 있어 여러 행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물론 카페의 손님들은 언제라도 토론에 끼어들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다.

사실 문학카페는 진행 방법이나 분위기 면에서 요즘 프랑스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철학카페'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철학 카페는 철학을 논하는 장이고 좀더 자유분방하다는 점을 빼면 말이다. 이런 토론회나 문학카페를 지켜보고 있으면 프랑스인들의

책과



박 시백.

DJ 신드롬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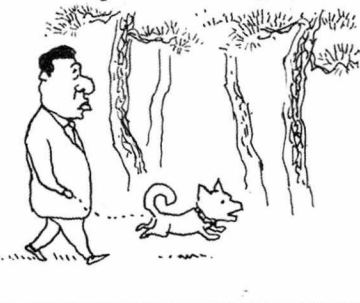
DJ가 즐겨 읽는



열은 푸른색 셔츠가 유행하고



청와대를 따라간 '똥똥이'를 담은



진돗개가 품귀란다.



뽕인가, DJ를 상징하는 인동초 화분까지 인기라는데...



도대체 이 모습은



왜 유행하지 않는 겁니까?



26개국 450여 외국 출판사가 참여한 도서전의 전경.

생활 속에 토론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다. 흔히 골민족으로 일컬어지는 프랑스인들의 민족성으로는 '말 많고 논쟁 좋아하는 민족'을 우선으로 꼽는데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이다. 프랑스가 사르트르에서 푸코, 부르디외에 이르기까지 그 숭한 기라성 같은 문학가, 사상가를 배출하면서 세계지성사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인의 생활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토론 문화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철학카페는 바스티유 광장의 전통 있는 카페인 '카페 데 파르'에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카페 데 파르' 축이 이번 파리도서전부터는 전시회에 참석해 따로 한켠에 철학카페를 열어 철학카페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라디오·TV·신문의 열띤 관심도 놀라워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동안, 4만 평방미터에 걸쳐 있는 넓은 전시장의 각 부스에서는 출판사 관계자들이 도서 홍보나 신간 소개에 열을 올렸다. 세계 주요국가의 책들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 세계 출판계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양서들도 즉석에서 살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유익한 행사였다.

한국도 이번 도서전에 참여했는데 한국부

스에서는 영어로 된 한국의 정치·문화·지리 소개 도서들과 한국아동도서 등을 전시했다. 하지만 전시만 하고 판매는 하지 않아 구매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

분야별로 보더라도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 만화전문 출판사에서 예술서적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판사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나름대로 선정한 양서와 신간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도서 상담이나 저작권 상담을 하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또한 파리도서전에서는 출판사마다 간판작가를 내세워 저자 사인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들로서는 유명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나 공쿠르상 수상작가의 사인회는 늘 발디딜 틈없이 붐볐다.

이번 파리 도서전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만 120회, 라디오 방송이 300회나 나갔고 신문잡지에 난 기사는 1400건이나 된다고 하니 파리도서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관심에 새삼 입이 벌어질 뿐이다. 출판인과 작가, 독자들의 만남의 축제인 파리도서전은 이제 파리 최대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